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에프로시노스 요리사 성인

(제4조 • 조과 부활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4조 부활 찬양송 82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186

성당 찬양송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186

사도경 : 갈라디야 6,11~18 190

복음경 : 요한 3,13~17 19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믿음으로 얻는 결실

거룩한 복음에서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주는 자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조차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지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십자가의 의미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가 기록된 모든 문서들을 없애 주시기 위함이다.”(골로사이 2,13~14)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가셨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주님께서 인성으로는 무서운 아픔을 겪게 되어 거룩한 당신의 육신은 고통에 시달렸다. 신성으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닫혔던 천국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다.

주님의 육신이 삼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을 때 그분의 신성과 인간의 영혼은 지하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일을 완성한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신 생명의 주관자께서 어떻게 무덤에 머무를 수가 있었는가? 영원한 승리자에게 죽음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내용과, 삼일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마태오 27,63 참조)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누르셨고 우리를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더욱 빛나게 기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있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과거에 십자가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고, 정결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시어 죽음을 맞게 하셨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들에게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세우시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민수기 21장)고 하신 예언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신 것이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태해진 믿음의 자세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현명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자기 자신의 일을 피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불행이 닥칠 때만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그때에서야 하느님께 희망을 두려고 한다면, 그런 희망은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느님 나라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희망을 얻기 전에는 어떤 평화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희망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 성 세라핌 사로프의 수도사제

당신의 온 영혼을 다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당신의 희망은 한 분 하느님께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친구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한, 우리의 적인 악마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악이나 폐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성 막시모스 고백자(콘스탄티노플의 수도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돌보아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그분 자비에 따라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 성 발사누피오스 팔레스타인의 수도자

9월 14일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교회는 기쁨에 넘쳐 축일을 지냅니다.

"보라!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기쁨이 왔다."
(부활 기도문 중에서)

십자가 현양 축일은 세 가지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326년,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어머니 성 엘레니 모후가 거룩한 나무 십자가를 발견한 기적입니다. 골고타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발견되었을 때, 성 엘레니는 눈물로 경배하고 예루살렘의 마카리오스 주교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 엘레니 모후가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 위에 부활 교회를 건립한 것입니다. 교회는 335년에 완공되어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음날인

9월 14일, 교회에서 성 십자가 현양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3세기 이후로 거룩한 십자가 현양의식을 다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 십자가를 14년 동안 탈취했지만 비잔틴 제국의 경건한 황제 이라클리오스는 성 십자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628년 9월 14일, 황제는 신을 벗고 곤룡포가 아닌 검소한 옷으로 성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부활 교회를 향해 행렬하여 예루살렘의 자카리아 총대주교에게 전달했고, 성당 중앙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후사에게 강복하시고..."라고 찬양송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방의 모든 교회는 공식적으로 십자가 현양 축일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14일(수)

십자가 현양 축일

* 9월 17일(토)

소피아와 딸들, 비스피,
엘비다, 아가씨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소식

■ 고등부, 신데즈모스 가을 수련회

고등부와 신데즈모스의 가을 수련회가 9월 23일(금)~25일(일)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참석 여부를 9월 15일까지 각 지역 성당을 통해 대교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6만원입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01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표지 사진 설명



부활 교회 (1)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요한 11,25)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의 죽음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석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이 예루살렘에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한 골고타 언덕과 무덤에 안장되었지만, 사흘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두 장소 위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부활 교회'이다.

타 교회는 이곳을 성묘 교회로 부르지만, 정교회는 부활 교회라고 한다. 부활 교회는 구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다. 성 엘레니 모후에 의해 335년에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으나, 그 후 이교도에 의해 파괴와 복구가 반복되다가 12세기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